

# TRANS- HUMANITIES

---

**Title : 『대한매일신보』 논설의 신학문 교육론에 반영된 전통 인식:  
을사조약 체결 전후(1904년~1906년)의 논설을 중심으로  
A Perspective upon Traditions Reflected in the  
Editorials for Education of “New Studies,” Published  
through the *Dae’han Mae’il Shin’bo*: Examination of  
Editorials Published around the Time of the *Eulsa*-Year  
Treaty(1904-1906)**

Author(s) : 박 경 (PARK Kyoung)

Source : *Trans-Humanities*, Vol. 5 No. 3 (2012), pp. 31-54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http://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대한매일신보』 논설의 신학문 교육론에 반영된 전통 인식\*

- 을사조약 체결 전후(1904년~1906년)의 논설을 중심으로

박 경

## 1. 머리말

이 논문에서는 을사조약 체결을 전후한 시기 『대한매일신보』 논설의 교육론에 나타난 전통 교육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신학문 학습이 국가의 발전과 독립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전제한 신학문 교육론이 교육론의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이러한 논설 속에 반영된 과거 한국<sup>1)</sup>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한 인식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문화와 서구 문물의 접촉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지식인들의 근대적 전통 인식의 형성 과정을 추적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 시기는 지식인들

---

**박경**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15).

1) 『대한매일신보』에는 당시의 대한제국을 ‘한국’, ‘대한’ 등으로 명명한 사례들이 다수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을 대한제국 시기에 국내에서 통용되던 용어로 판단하고, 이 논문에서 ‘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의 계몽 운동이 실천 운동의 성격을 띠고 확산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서구 문물의 성공적 수용이 국운의 성쇠를 좌우한다는 믿음이 조선의 현실과 만나 어떤 논의를 만들어냈는지를 검토하기에 적당한 시기이다. 또한 『대한매일신보』는 이 시기 학교의 설립과 대중 계몽에 적극적이었던 신문이었다.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된 1904년 7월은 일제의 침략정책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이해 2월에 러일전쟁이 발발하였고, 일본과의 사이에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다. 또한 이해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어 일본에서 추천하는 재정고문, 외교고문이 취임하였다. 이 외에 궁내부, 군부 등에도 일본인 고문이 취임하였으며, 학부에도 일본인이 참여관이 되어 학부 행정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정세는 당시 지식인들의 위기의식을 고취시켰다.

특히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지식인들은 좌절감과 더불어 외세에 의해 핍박받는 상황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의지를 강화시켜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육과 계몽이 강조되었다. 1905년 이후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 이민 사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었다.<sup>2)</sup> 그리고 1906년 이후에는 많은 학회들이 설립되어 학교 설립과 대중 계몽에 전력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창간되어 대중 계몽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필자는 민간 지식인들이 관에 의지하지 않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육과 계몽을 담당하기 시작하던 이 시기에 주목하였다. 신학문 교육을 주장하고 정부에 이에 관한 정책을 요구하던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지식인들 스스로가 교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시기 지식인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 현실에 대한 고민을 본격화해 나갔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는 이전보다 한국의 현실에서 신학

---

2) 손인수. 『한국개화교육연구』. 일지사, 1980, 117-128쪽 참조.

문을 어떻게 교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908년과 1909년의 교육론은 민간인에 의한 학교와 학회의 설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던 1905년, 1906년의 교육론보다 더 구체화되고 다각화되었다. 이는 우선 지식인들의 교육 및 계몽운동에의 참여 경험이 축적되면서 논의가 더 무르익은 때문일 것이다. 또한 1907년 신민회의 창립과 고종의 퇴위, 정미 조약, 군대 해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제의 내정간섭이 강화되고 한국인의 자존감에 손상을 입은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도 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신학문 교육론에서의 전통 인식이라는 주제를 연구함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천과정을 세밀하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1907년 이전과 이후의 교육론을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이 논문에서는 을사조약 전후 시기인 1904~1906년의 교육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이 시기 교육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구국운동, 자강운동의 차원에서 교육론의 내용을 개괄한 연구들이 있다(김숙자 21-41; 정송교 143-207; 최경숙 161-184; 한미라 65-83). 이 연구들은 이 시기 교육론의 특징을 구명한 토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별히 여성교육론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이윤희 209-224).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토대 연구에서 더 나아가 구국운동, 자강운동의 성격을 띤 신학문 교육론에 전통이 어떠한 모습으로 위치지워져 있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권 침탈의 위기 속에서 부강한 자주 국가를 달성하고자 했던 당시 지식인들의 혼효된 인식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대한매일신보』 논설의 논자들이 설정한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이들이 이러한 교육 목표하에서 전통 교육과 문화, 한국인의 자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논설에 나타난 교육 목표의 추이

### 1) 을사조약 체결 이전의 교육 목표

신학문과 한국 문화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권력관계를 가지고 접촉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2장에서는 『대한매일신보』 논설의 논자들이 설정한 신학문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신학문 교육의 목표는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그 강조점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을사조약 체결 이전 논설에서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문명국 반열에 들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1904년 10월 22일 〈훈 권면홀 일〉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는 개명한 야만을 학문의 유무로 분별한다고 하였다.<sup>3)</sup> 이 논설에서 개명한 나라의 기준은 영국과 같은 나라였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몇천년 전에는 백성들을 하인과 같이 생각하였고, 전쟁할 때에도 손톱으로 할퀴며 돌과 몽둥이로 쳐서 죽이기도 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부강하고 개명한 나라의 으뜸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현재 ‘개명한 나라’도 과거에는 ‘야만의 상태’였고, 교육에 의해 현재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도 꾸준한 교육 정책을 통하여 개명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905년 10월 22일자 〈교육의 요무〉(教育의 要務)에서는 문명국가로 가기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교육이라고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학식과 공작(工作)과 신용이 국민이 진취하는데 힘써야 할 계획이니 이와 같은 사업을 나누어주어 교수하도록 하는 학정(學政)이 한국을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떨쳐 일어나 문명국 반열에 참여하

3) 『대한매일신보』 제83호, 1904년 10월 22일, 론설, 훈 권면홀 일.

게 할 가장 시급한 중요한 일이다.<sup>4)</sup>

그런데 〈훈 권면할 일〉에서 든 영국의 ‘문명화’되기 전의 상태는 민권이 존중되지 않고, ‘야만적’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었다. 이 ‘야만’의 상태는 서구 근대 사회에서 형성된 ‘문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했다. ‘문명 사회’는 근대 서구 ‘문명 국가’에서 형성된 ‘보편적’ 기준에 부합했을 때 성립될 수 있었다. 따라서 서구 외의 지역에서 교육에 의해 ‘문명 국가’가 된다는 것은 해당 지역, 국가에서 형성된 습속 및 원칙을 버리거나 변경하거나 새로운 습속을 수용하여 서구 ‘문명 국가’에서 형성된 규칙에 편제해나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둘째, 국가를 번영하게 할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라는 점을 들었다. 1905년 10월 1일자 〈학림חס사〉(學林欠事)에서는 “나라의 융성함과 쇠퇴함은 인재의 많으나 적으나에 있고, 인재의 많고 적음은 학교의 흥폐(興廢)에 관계되기로”라고 하였다.<sup>5)</sup> 교육이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논리일 것이다. 그런데 특히 당시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은 부강한 ‘문명 국가’를 건설하여 일제의 침략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학문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셋째, 애국심 함양을 들었다.

1905년 10월 12일자의 〈서적이 위개발민지지남〉(書籍이 爲開發民智之指南)에서는 “대한의 인민으로 하여금 애국열심(愛國熱心)을 양성하게 하고자 하면, 민지(民智)를 깨우침에 있고”라고 하였다.<sup>6)</sup> 이 글

4) 『대한매일신보』 제59호, 1905년 10월 22일, 논설, 教育의 要務. “學識과 工作과 信用이 國民進就에 密勿之計니 如右事業을 分與教授하는 學政이 韓國을 現今 殘局에서 興起하여 文明國班伍에 參與케 할 急先要務로다”

5) 『대한매일신보』 제42호, 1905년 10월 1일, 논설, 學林欠事. “國之隆替는 在於人材多寡하고 人材多寡는 係學校之興廢기로”

6) 『대한매일신보』 제51호, 1905년 10월 12일, 書籍이 爲開發民智之指南. “大韓人民으로 하여금 愛國熱心을 養成코져 하면 民智를 開闢함에 在하고”

의 논지는 애국심도 교육에 의해 양성된다고 믿었다. 또한 애국심 양성의 모델을 한국, 혹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찾지 않고, “저 개명부강한 국민은 모두 애국열심이 있어”<sup>7)</sup>라고 하며, 서구의 ‘문명 국가’에서 찾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신학문을 널리 공부하는 것이 애국심 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애국열심으로 함께 분발하면 일등 개명한 인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국가 위상의 증대와 인권의 발전을 들었다.

1905년 10월 31일자 <권고상회>(勸告商會)에서는 상권의 확장이 인권과 국권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며, 상업 교육과 관련 학문의 발달이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하였다.<sup>8)</sup> 신학문을 습득하여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국위(國威)를 높게 되고,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권리도 향상된다는 논리를 폈다. 서구와 같이 상업이 발달한 나라가 된다면 국위와 인권이 모두 향상되리라고 보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을사조약 체결 이전의 논설에서 제시한 교육의 목표를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목표 모두가 ‘문명 국가’ 건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을사조약 체결 이후의 교육 목표

을사조약 체결 후에는 국운의 회복과 증흥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로 부상하였다. 물론 국운의 회복과 을사조약 이전에 언급되었던 교육의 목표들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여러 논설들을 종합하여 당시 지식인들의 논리를 정리해보면, 교육을 통해 민지를 개발하여 문명 국가로 발돋움함으로써 국가의 독립을 회복하고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7) 『대한매일신보』 제51호, 1905년 10월 12일, 書籍이 爲開發民智之指南. “彼開明富強 國民은 皆愛國熱心이 有 ㅎ야”

8) 『대한매일신보』 제66호, 1905년 10월 31일, 논설, 勸告商會.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지 개발은 애국심 고양도 포괄하는 것이었다.

교육의 최대 목표를 국권의 회복으로 설정한 것은 을사조약 체결에 항거하며 1905년 11월 30일 자결한 민영환이 남긴 2천만 동포에게 고하는 유서의 내용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1905년 12월 3일자 논설에는 <독계정민보국유서>(讀桂庭閔輔國遺書)라는 제목으로 이 유서의 내용을 실었다.<sup>9)</sup> 이 유서의 “우리 나라의 동포 형제가 천만배 더욱 분발하여 지기(志氣)를 견고히 하고 학문에 힘써 마음을 결속하고 힘을 합쳐 우리의 자유독립을 회복하면 죽은 자가 마땅히 저세상에서 기쁘게 웃을 것이다”<sup>10)</sup>라는 내용에서는 의지를 견고히 하고 학문에 힘쓰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단결한다면 자유독립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인식은 을사조약 체결 이후 1906년에 이르기까지 『대한매일신보』의 교육론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 있다. 국권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교육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민영환의 유서에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중요시했다. 국민 각자가 경쟁력을 갖춘 후에 이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함으로써 독립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국권 회복에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리는 『대한매일신보』의 많은 다른 논설에도 드러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논설 중 세 사례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가) 전국 상하의 인민들은 모두 각성하여 게으른 고질적 습속을 없애고 분발하여 일어나 새로운 힘을 배양하여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제반 정치와 교육과 실업에 관한 사업을 부단히 하여 국권을

9) 『대한매일신보』 제93호, 1905년 12월 3일, 논설, 讀桂庭閔輔國遺書.

10) 『대한매일신보』 제93호, 1905년 12월 3일, 논설, 讀桂庭閔輔國遺書. “我國同胞兄弟는 千萬倍 奮勵 亨야 堅乃志氣 亨고 勉其學問 亨야 結心戮力 亨야 復我自由 獨立 亨면 死者 當喜笑於冥冥之中이라”

회복하고 국민의 목숨을 보존할 미래에 분명하게 진보할지이다.<sup>11)</sup>

(나) 원컨대 대한의 동포는 지금부터는 이전의 우매하고 깨닫지 못하여 타인의 탐학을 받은 까닭을 깊이 반성하고 깊이 깨달아 일체 통상(通常)의 학문에 종사하여 고유한 지식을 개발하고 하늘에서 부여한 권리를 회복하여 관리의 침어(侵魚)도 받지 않고 외국인의 능학(陵虐)도 받지 않아 국민 자격을 각각 지키면 국가권력도 또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니 힘쓸지이다. 힘쓸지이다.<sup>12)</sup>

(다) 지금의 시대는 일반 국민이 비록 필부필부(匹夫匹婦)라도 그 교육의 의무를 수행한 후에 거의 노예의 처욕을 면할 것이므로 또 한번 논하노라.<sup>13)</sup>

이 세 사례를 살펴보면,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교육에 힘써 국권을 회복하지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나)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통상의 학문에 종사함으로써 고유의 지식을 개발하고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외세인 일제 뿐 아니라 대한제국의 관리도 압제자로 거론되었다. 국민 각자가 관리의

---

11) 『대한매일신보』 제102호, 1905년 12월 14일, 논설, 莫如爲爲. “惟願全國上下는 一致로 猛然省悟호야 因循偷惰의 宿 ■ 을 卽拔호고 奮發興起의 新力을 培養호야 時刻을 放過치 勿호고 諸般政治와 教育과 實業의 關호 事業을 爲之爲之호야 國權을 回復호고 民命을 保存호前塗에 鑿鑿進步호지이다” \* ■ 는 흐려서 판독이 되지 않은 글자임.

12) 『대한매일신보』 제125호, 1906년 1월 16일, 논설, 閱地方官吏貪藏記. “惟願大韓同胞는 自今으로는 曾前에 愚昧沒覺호므로 他人의 貪暴를 蒙受호 所以를 猛省深悟호야 一切通常學問에 從事호야 固有호 知識을 開發호고 天賦호 權利를 回復호야 官吏의 侵魚도 不受하며 外人의 凌虐도 不被호야 國民資格을 各各保守호면 國家權力도 亦可克復호리니 勉之勉之어다”

13) 『대한매일신보』 제223호, 1906년 5월 19일, 논설, 學部官吏之罪. “現今時代는 一般國民이 雖匹夫匹婦라도 自擔任其教育之義務然後에 庶幾免奴隸之耻辱故로 又一申論호노라”

침학을 받지 않을 정도의 권리를 확보해야 외세의 압제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와 같은 논설들의 논리였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층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교육을 받아 국민 각자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신학문 교육을 통한 민지 개발과 인재 양성으로 '문명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하에서는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서구의 신학문 교육이 급선무였다. 또한 한국의 전통과 습속은 상당부분 버려야 하는 것이었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국권의 회복이 교육의 최대 목표로 부상했지만 민지를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문명 국가'에 이르는 것은 국권 회복에 이르는 필수 과정이었다. 따라서 신학문 교육을 강조하는 기조가 수그러들지는 않았다.

다만 국권의 회복이 가장 큰 과제가 되면서부터는 신학문 외에 한국적 가치 및 전통 학문을 돌아볼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1905년, 1906년은 지식인들이 대중 계몽과 국권 회복을 위해 교육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 교육 현실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신학문 교육이 강조되는 가운데 실제 교육 현장인 한국의 현실과 전통에 대한 지식인들의 입장이 정리되기 시작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3. 신학문 교육론에 반영된 전통 인식

#### 1) 전통 교육에 대한 인식

'문명화'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학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논설의 논자들에게 한국의 현실과 전통 교육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대한매일신보』의 논설들에서는 '문명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연구하고 교육해야 할 학문으로 정치학, 법학, 경제학과 수리학, 그리고 상무(商務) 교육 등의 실업학문을 꼽았다.<sup>14)</sup> 이 논설의 논자들은 이에 정진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반면 전통 교육에서 교수하는 학문은 효용성이 적은 학문으로 취급하였다.

1904년 10월 18일자에 최준기라는 한 독자가 교육과 학문의 발달을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대한매일신보』를 칭찬한 글을 게재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우리 대한은 예부터 여간 학문을 숭상한 것이 아니어서 음풍영월에 부허한 학문을 힘쓸 뿐 아니라 그러한 학문이나마 공부한 사람이 열에 하나도 못 되니 어찌 개탄치 아니하리오”라고 하였다.<sup>15)</sup>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하는 전통이 있지만 효용성 없는 학문에 힘썼으며, 그러한 학문이나마 공부한 사람이 적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는 실용적인 학문을 교육해야 하고 교육받는 계층이 확산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논설에서도 전통 교육에 대한 비판 논리들이 나타난다. 1905년 10월 1일자 〈학림흡사〉에서는 구미 여러 국가들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실용적인 여러 학문에 힘써 전무후무한 지식과 놀라운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며, 한국의 교육 실태를 비판하였다. “오직 한국은 그렇지 않아 습속에서 숭상하는 바가 걸치레만 있는 글, 번거로운 예(禮) 등에 불과하니, 옛 사람의 찌꺼기라. 넓으나 중요한 것은 적으며, 비고 실속이 없어 민속의 수준 낮음과 국세의 쇠퇴함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으되”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sup>16)</sup> 이는 효용성 없는 학문, 즉 걸치레

14) 『대한매일신보』 제66호, 1905년 10월 31일, 논설, 勸告商會; 제68호, 1905년 11월 2일, 空談何益; 제112호, 1905년 12월 30일, 논설, 賀雜誌創刊.

15) 『대한매일신보』 제79호, 1904년 10월 18일, 기사, 최준기. “우리 대한은 즈고로 여간 학문을 숭상하여 음풍영월에 부허한 학문을 힘쓸 뿐 아니라 그러한 학문이나마 공부한 사람이 열에 하나도 못 되니 어찌 개탄치 아니하리오”

16) 『대한매일신보』 제42호, 1905년 10월 1일, 논설, 學林欠事. “惟獨韓則不然 好야俗習之所尙이 不過浮文繁禮等 古人之糟粕이라 博而寡要호며 虛而無實호야 民俗之鄙野와 國勢之陵夷가 職由乎此이되”

만 있고 실속이 없는 글과 번다한 예를 교육하는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옛 사람의 찌꺼기라고 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전통 학문의 정수가 아닌 말단만을 공부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옛 학문의 말단에만 매달려 서구 중심의 세계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당시의 교육 실태를 비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1906년 3월 9일의 독자 기고글인 <시무막선어학문> (時務莫先於學問)에서 “우리나라에 어느 시기에나 배움이 없지 않았으되 옛 사람의 실용을 구하지 않고 한갓 그 말단만을 일삼고 서양 사람의 신학문에 힘쓰지 않고 옛날 것만을 고수하여 아이들이 많은 양을 학습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여”라고 한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sup>17)</sup> 이 글에서도 과거 조상들이 공부하던 학문을 존중하면서, 시국에 필요한 신학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 교육의 말단만을 쫓는 융통성과 실용성이 없는 교육 실태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즉, 이러한 전통 교육에 대한 비판은 과거의 학문과 교육에 대한 비판이 아닌 1905, 6년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전통 교육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교과서를 일어 일문으로 된 교과서로 쓰도록 한 학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 교육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반박한 1905년 10월 5일자 <논몽학교육>(論蒙學敎學)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는 전통 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이전부터 한국의 몽학(蒙學)의 과목은 주홍사의 『천자문』(千字文)과 박세무의 『동몽선습』(童蒙先習)과 증선지의 『사략』(史略)과 강소미의 『통감절요』(通鑑節要)와 『당음절구』(唐音絶句)와 『고문

17) 『대한매일신보』 제193호, 1906년 3월 9일, 기서, 時務莫先於學問. “我國에 非日無學이로되 不求古人之實用而徒事其末호고 不務西人之新學而膠守其舊호야 童習白紛에 虛拋光陰호야”

전집』(古文前集) 등의 책으로 하니, 『천자문』으로 말하자면, ‘주(宙)’를 읽고 ‘옥(屋)’과 같다고 하고, ‘숙(宿)’을 읽고 ‘수(睡)’와 같다고 하는 것이 무슨 문장의 뜻이며, 『사략』으로 말하자면, 천황(天皇), 지황(地皇)의 수덕(水德), 화덕(火德)이 어찌 사실이며, 『동몽선습』은 윤교(倫教)를 밝혔으나 어린 사람들에게 어려운 어구가 있고, 『통감절요』는 권질(卷帙)이 너무 많아 1, 2년간에 졸업할 내용이 아니며, 『당음절구』와 『고문전집』은 시주방랑(詩酒放浪)의 이야기이니, 이는 아이들을 양성시키는 공에 이익이 없고 손실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7, 8세부터 15, 6세에 이르기까지 8, 9년을 공부 하였으되 흐리멍덩하여 실로 이익이 될 바가 없다가 수십년이 지나 아이가 많은 공부를 한 후에야 대략 경사(經史)에 통하고 문자(文字)를 사용하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한국 선비의 신령하고 맑은 기운과 인민의 상서롭고 맑은 품성으로 오늘 날에 이르러 문화의 발달이 지체됨을 면치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오직 그 난해한 서적과 긴요하지 않은 공부로써 전국인민의 유년세월을 허송케 한 까닭이니, ...<sup>18)</sup>

이 내용은 한국의 전통 교육 과정을 비판한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전통 교육 내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실제로는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8) 『대한매일신보』 제45호, 1905년 10월 5일, 논설, 論蒙學教學. “由來로 韓國蒙學之科는 周興嗣의 千字文과 朴世茂의 童蒙先習과 曾先之의 史略과 江少微의 通鑑節要와 唐音絕句와 古文前集等書로 以 ㅎ니 以 千字言之 ㅎ면 讀宙如屋 ㅎ고 讀宿如睡가 是 何文義며 以 史畧言之 ㅎ면 天皇地皇의 木德火德이 是 何事實이며 童蒙先習은 倫教를 發明 ㅎ얏스나 蒙幼의 難解 ㅎ 句語가 有 ㅎ고 通鑑節要는 卷帙이 太多 ㅎ야 一二年間에 卒業 ㅎ 바 아니오 唐音絕句와 古文前集은 多是 詩酒放浪說話니 此는 蒙養之功에 無益有損 ㅎ 者라 是以로 自七八歲로 至十五六에 費却八九年工夫로되 含糊朦朧 ㅎ야 實無所得이라가 積至數十年 ㅎ야 童習白紛 ㅎ 然後에 方能略通經史 ㅎ고 使用文字 ㅎ니 此其爲學이 豈不難哉아 夫以 韓土靈淑之氣와 人民詳明之品으로 至于今日 ㅎ야 文化의 發達이 不勝其遲遲 ㅎ 無他라 惟其難解 ㅎ 書籍과 不緊 ㅎ 工夫로써 全國人民의 幼年歲月을 虛送케 ㅎ 緣故니 ...”

한자 입문서인 『천자문』과 한문 문장 교육서인 『당음절구』, 『고문전집』은 내용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점이, 중국의 역사서인 『사략』과 『통감절요』는 고대의 믿기 어려운 전설적인 이야기가 수록되었거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유교 윤리서인 『동몽선습』은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다는 점이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합당하지 않은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논설에서는 이 서적들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서로서의 단점을 지적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교육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문, 중국의 역사, 유교 윤리를 근대의 교과 내용에서 배제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실용적인 내용을 적당한 분량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동몽선습』은 윤교를 밝혔으나 어린 사람들에게 어려운 어구가 있고” 라고 한 것을 통해서서는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구들이 있다는 점 때문에 교재로 부적당하다고 지적하였지만 이 책의 내용인 유교 윤리의 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논설의 논자들은 신학문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고, 이는 기존 교육의 전면적 ‘개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학문을 교육할 때에는 기존의 학문적 기반을 무시할 수 없었다. 또한 전통 교육 내용 모두가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논설의 결론에서는 “보통의 소학과(小學科)는 본래의 고유한 성질의 적합한 것을 헤아리고 각국 규모의 양호한 것을 참작하여 국한문을 함께 쓰고 그림을 합하여 간편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편집된 책자로 전국 어린이에게 통일된 교과서를 정함이 옳다.”라고 하였다. 이 결론과 함께 위의 내용을 고려해 보면 이 논설의 논자는 신학문 교육과 더불어 전통 교육 내용도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간명하게 편집되어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06년 1월 14일자 <위란유어정계무인비서적지죄>(危亂由於

政界無人非書籍之罪)에서는, 구서적을 교육하지 말고 신학문을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전통 학문에서 취해야 할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 논설의 논자는 구서적에서든 신학문에서든 충의(忠義)와 염치(廉恥)를 함양해야 애국심, 국민을 애호하는 마음, 공정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sup>19)</sup> 이는 당시 지식인들이 전통적 가치에서도 ‘문명화’된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학문 연구를 강조하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근대 한국에 필요한 가치로 변형하여 이용할 여지도 남겨두었던 것이다. 한편, 이 논설에서는 “전일의 인재로 하여금 지금의 조정에서 일하게 하면 충애(忠愛)가 충만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의 대세를 일찍 남김없이 간파하여 신학문을 확장하며 실력을 양성하여 내수와 외교에 여유가 있어 오늘날의 치욕이 결코 없었을 것이니”라고 하였다.<sup>20)</sup> 과거의 정치가, 학자들이 지금 상황에 처했다면 세계 정세를 일찍 파악하여 신학문 교육을 하여 서구 열강에 뒤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 논설의 논자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과거 정치가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뢰하고, 전통 학문에서도 ‘문명화’된 독립 국가 건설에 기여할만한 가치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전통 문화 및 한국인의 자질에 대한 인식

『대한매일신보』의 교육에 관한 논설 중에는 과거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자질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먼저 과거 한

19) 『대한매일신보』 제124호, 1906년 1월 14일, 논설, 危亂由於政界無人非書籍之罪.

20) 『대한매일신보』 제124호, 1906년 1월 14일, 논설, 危亂由於政界無人非書籍之罪. “使前日之人材로 處在今之朝廷이면 凡所事爲之際에 忠愛藹然은 姑 ■ 勿論 亨고 宇內大勢를 早已看破無餘 亨야 新學問을 擴張 亨며 實力을 養成 亨야 內修 外交에 綽有餘裕 亨야 今日之恥辱이 決無 亨야실지니” \* ■는 흐려서 판독이 되지 않은 글자임.

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사례들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906년 3월 30일자 <공독대조>(恭讀大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한이 4천년의 오래된 나라라. 단군기자 이래로 신라, 고려시대에 문물의 아름다움이 진실로 잘 갖추어졌고, 본조(조선)에 이르러 문교(文教)가 크게 밝혀지고 유현(儒賢)이 배출되어 충효의 가르침이 점점 인심에 닿고 염치와 양보의 예절이 선비의 기운을 양성하여 강상(綱常)을 맡아하고 의리를 일상적으로 행하는 자가 여기저기에 보이니, 그것을 동방의 예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믿을만하여 과장된 것이 아니로다. 저 일본이 일천년전에 실로 대한의 문화의 혜택을 입어 정치, 교육, 문장이 하나도 여기에서 근원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증거가 될만하다. 지금 비록 정치가 부패하고 국력이 위약하여 마침내 타인에게 양보하는데 이르렀으나 국민의 임금에게 충성하고 친히 여기는 의가 진실로 머릿속에 맺혀있는 것은 실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본 자질의 아름다움이 이와 같고, 어찌 어둡고 막힌 것으로 그치는 데에서 마치겠는가. 천운이 돌아감에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이 논설을 살펴보면 정치가 부패하고 국력이 위약하여 일제의 침략을 받는데 이르렀지만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문화가 번성하고 윤리의식이 탁월했다고 찬미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자질이 훌륭하니 반드시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의 과거 문화에 대한 자긍

21) 『대한매일신보』 제181호, 1906년 3월 30일, 논설, 恭讀大詔. “大韓이 是四千年舊國이라 自檀箕以來로 迄于羅麗時代에 文物之美가 固已彬彬矣 至于本朝 文敎大闡 儒賢이 輩出 忠孝之訓이 漸摩人心 恥讓之節이 養成 士氣 擔任綱常 菽粟義理者가 在在相望 其謂東方禮義之邦者 信不誣也 彼日本이 在一千年前에 實被大韓之文化 政敎文章이 無一不根源於此者 尤班班可考矣 現今에 雖政治腐敗 國力이 萎弱 遂致讓步於他人이나 國民의 忠君親上之義가 固結於腦髓者 實有不可得而奪者 原素之美가 如此 豈其終於晦盲否塞而止哉 天運이 循環에 有往必復이라”

심과 국민의 자질에 대한 신뢰가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논설에서는 한국인들이 분발하여 배우는데 힘쓴다면 국운을 만회하고 인권을 신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융성했던 과거의 문화와 국민의 자질을 바탕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교육 진흥에 장애가 되는 현재의 습속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과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논설도 있다. 1906년 1월 7일자 <무망흥학>(無望興學)에서는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타파해야 할 폐습 7가지를 들었다. 국민과 나라를 생각지 않고 사적인 조그만 이익에 몰두하는 험잡지습(挾雜之習), 신학문, 신지식, 신사업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고루지습(固陋之習), 한국의 재산가들이 교육 사업 등에 경비를 내어놓지 않는 인사지습(吝私之習), 단기간의 효과를 위해 교육에 눈을 돌리지 않는 욕속지심(欲速之心), 자신과 가족에게만 관심을 두고 국민과 국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무원대지식(無遠大之識), 국권이 침탈당할 위기에도 분발하고 격려하며 권하는 기상이 없는 무분발지기(無奮發之氣),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무견인지성(無堅認之性)이 그것이다.<sup>22)</sup>

이렇게 이 논설에서는 교육의 진흥에 장애가 되는 폐습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논설에서 폐습이라고 지적한 사안과 반대되는 사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사적인 이익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신학문, 신지식, 신사업 확산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사재를 털어 교육사업을 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논설에서 지적한 폐습은 한국의 전통적 습속을 지적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교육 진흥이라는 목표하에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요소들을 서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22) 『대한매일신보』 제118호, 1906년 1월 7일, 논설, 務望興學二.

한편, 협잡지습에 대한 설명중에, “대한의 예전에서부터 내려온 이름다운 습속을 논하면 예의를 숭상하고 명분과 절의를 높이 여겼는데, 근래에 풍화(風化)가 해이해지고 세도(世道)가 오염되어”<sup>23)</sup> 라고 한 것에서 이 논설의 논자가 과거의 예의와 절의를 중시하던 풍속을 높이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논설의 논자는 과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러한 문화의 좋은 점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신지식을 통한 문명화에도 뒤쳐진 당시 한국의 상황을 개탄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인들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 사례들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904년~1906년의 『대한매일신보』 논설에서는 일관되게 현재의 정부 당국자들을 독립된 ‘문명 국가’로 이끌 의지와 능력이 없는 존재로 평가하였다. 다음 내용은 이러한 논설 중의 하나이다.

진실로 정부에서 형세에 따라 잘 인도하며 교육이 적절하면 이름다운 습속이 이루어짐이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만큼 쉽거늘, 도리어 국민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며 교육하지 않고 그 견식을 막아 타인의 노예가 되게 하고 돌보지 않으니, 이로써 논하건대 정부가 백성을 저버리는 것이오 백성이 국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sup>24)</sup>

이렇게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는 불신을 보인 반면 한국인들의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23) 『대한매일신보』 제118호, 1906년 1월 7일, 논설, 務望興學二. “大韓舊來美俗을論하면 禮義를 崇尚하고 名節을 矜飭하더니 挽近風化가 陵夷하고 世道가 汚濁하야”

24) 『대한매일신보』 제171호, 1906년 3월 18일, 논설, 讚韓民之向學. “苟自政府로 因勢利導하며 教育有方이면 美俗之成이 易如指掌이거날 顧乃壓制之하며 剝割之하며 不加教育而錮其見識하야 俾作他人之奴隸而莫之恤焉으니 以此論之커니 政府負民이오 非民負國이라”

(가) 한국 인민이 대개 글과 학문을 주로 하여 공부에 총명함과 교육 순서의 오늘날 진취함을 보면 국민의 발달을 여기에서 믿을 수 있다.<sup>25)</sup>

(나) 전일에 일체 민국의 일을 사대부에게 양보하던 좋지 않은 습속을 개혁하고 인권과 국권을 각기 담당할지니 ...<sup>26)</sup>

(가)와 같이 한국인의 자질과 역량을 신뢰하던 논의는 그동안 정치 운영을 담당했던 계층인 사대부에 의지하지 말고 국민 스스로가 인권을 신장하고 국권을 회복하는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나)와 같은 논리로 발전하였다. 실제로 1906년의 논설에서는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통해 ‘문명 국가’를 건설하고 국권을 회복하지는 논리가 대세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여러 논설 속에 반영되었다.

####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을 통해 을사조약 체결 전후의 신학문 교육론에 반영된 전통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에서는 서구와 같은 ‘문명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하에 신학문 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는 국권 회복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지만 이 역시 교육을 통해 ‘문명 국가’

25) 『대한매일신보』 제59호, 1905년 10월 22일, 논설, 教育의 要務, “韓國人民이 蓋以文學爲主호야 敏於工課함과 教育順序의 今日進就를 觀之면 國民發達을 於此可信이오.”

26) 『대한매일신보』 제66호, 1905년 10월 31일, 논설, 勸告商會, “前日에 一切民國事를 士大夫의게 讓步호던 陋習을 改革호고 人權과 國權을 各其負擔호지니 ...”

의 반열에 들어섬으로써 국권을 회복하지는 것이었다. 다만 국권 회복이 가장 큰 과제가 되면서부터는 신학문 외에 한국적 가치 및 전통 학문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05년, 1906년은 지식인들이 대중 계몽과 국권 회복을 위해 교육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함으로써 대중에게 신학문을 널리 교육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한국의 교육 현장에 접합되던 시기였다. 이를 고려하면 이 시기는 신학문 교육이 강조되는 가운데 실제 교육 현장인 한국의 현실과 전통에 대한 지식인들의 입장이 정리되기 시작하던 시기였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문명화’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신학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논설의 논자들에게 한국의 현실과 전통 교육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전통 교육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 아닌 전통 학문의 정수는 버려두고 말단만을 공부하는 세태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 실태를 비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통 학문에서도 ‘문명화’된 독립국가 건설에 기여할만한 가치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신학문 교육과 더불어 전통 교육 내용도 새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간명하게 편집되어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에서는 국력이 약하여 일제의 침략을 받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과거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부 당국자들을 독립된 문명국가로 이끌 의지와 능력이 없는 존재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인의 자질과 역량은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1906년의 논설에서는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문명 국가’를 건설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가 되었다. 이는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논설의 논자들이 신학문 교육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통 학문의 교육

실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전통 학문의 가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표출한 점은 이후 ‘한국의 정신’을 강조하는 주장의 인식적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인의 자질과 역량을 신뢰하고, 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문명국가’를 건설하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는 국권 회복을 위한 계몽의 움직임이 전근대적 신분 관념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 인식이 이후의 근대화와 독립운동, 그리고 근대적 인식체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대한매일신보』(영인본)1권-3권.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1976.
- 구자혁. 「張志淵의 歷史意識과 教育論」. 『역사교육』 27 (1980): 85-112.
- 김숙자. 「獨立協會의 教育思想 -독립신문의 教育論說 分析-」. 『한국사연구』 30 (1980): 77-106.
- \_\_\_\_\_. 「舊韓末 女性誌의 救國教育論」.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 (1988): 21-41.
- 손인수. 『韓國開化教育研究』. 서울: 일지사, 1980
- 이광린, 유재천, 김학동. 『大韓每日申報研究』.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6.
- 이윤희. 「開化期 言論을 통해서 본 女性教育論」. 『백산학보』 41 (1993): 209-224.
- 정승교. 「1904-1910년 自強運動의 國民教育論」. 『한국사론』 33 (1995): 143-207.
- 최경숙. 「『皇城新聞』에 나타난 자강교육론」. 『고고역사학지』 17:18합집

(2002): 161-184.

한국언론사연구회 편. 『대한매일신보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한미라. 「大韓每日申報에 나타난 救國教育論」. 『숙대사론』 13·14·15합집 (1989): 65-83.

A Prespective upon Traditions Reflected in the Editorials for Education of “New Studies,” Published through the *Dae’han Mae’il Shin’bo*: Examination of Editorials Published around the Time of the *Eulsa*-Year Treaty(1904-1906)

Park, Kyoung  
(Ewha Womans University)

Examined in this article, is earlier people’s view of traditional education and culture, which is well reflected in the editorials for education published through the *Dae’han Mae’il Shin’bo* (*The Korea Daily News*) around the time of the *Eulsa*-Year Treaty (1904-1906). The reason for this examination is to find out how Korean people’s modern perspective upon traditions actually formed in a time when Japan was violating Korean sovereignty step by step and the intellectuals’ enlightenment movement was picking up speed and when Korean culture was making more and more contact with Western Civilization daily. To the authors of the editorials examined here, who argued that Koreans should engage in new academic studies in order to found a ‘civilized’ independent country, the traditions and reality of Korea were very negative things. But to be absolutely specific, this criticism

was actually within the trend of the time itself, which tended to pursue superficial aspects of traditional academicism, and therefore failed to adapt to the continuously shifting new environment. The editorial authors believed that there were still many terms in which traditional academicism could contribute to the foundation of a civilized and independent new country for the Korean people. They believed that not only the new studies that came from the outside, but also studies from traditional academicism, should be taught in schools, albeit in a condensed and modified form. They were fairly critical of the present reality of Korea, which was being subjected to Japanese imperialism due to Korea's weak state, but they were also proud of Korea's past culture. And while considering the officials of the Dae'han Imperial government extremely incompetent, they had faith in the Koreans' general talents and inherent capabilities. They argued that with the individuals' capability enhanced through education, a civilized country could be established, and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would be restored. The authors' negative perception of the value of traditional studies and their pride in past culture laid the foundation of the future for which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Spirit." And from the belief that individuals' enhanced capability could lead Korea to civilization and sovereignty, we can see that the enlightenment movement aiming for sovereignty restoration must have played an instrumental part in weakening the traditional consciousness of social classes.

주제어 (Keywords): 『대한매일신보』 (*Dae'han Mae'il Shin'bo*, *The*

[www.kci.go.kr](http://www.kci.go.kr)

*Korea Daily News*), 신학문 (New Studies), 교육 (education),  
문명 (civilization), 독립 (sovereignty), 전통 (tradition)

논문제출일: 2012. 08. 20
심사완료일: 2012. 09. 20
게재확정일: 2012. 09. 25